모디 총리의 취임과 내각구성

(2014. 6. 2)

뉴델리사무소

변화 기대감 및 전망

- **인도국민당(BJP)의 압승과 모디(Narendra Modi)의 총리 취임으로, 과거 모디의 구자라트주 경제성장 성공사례가 인도 전역에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나, 누적된 재정적자 및 높은 인플레이션율 등의 장애물 극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.**
- **경제성장 공약 실현을 위한 모디의 내각구성은 의사소통에 유리한 작은 구성원 수와 BJP 압승에 따른 모디 측 인사 대거 등용이 핵심으로, 동 구성이 정책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전망임.**

1. 16대 총선 결과 및 BJP 승리 요인

□ 인도국민당(BJP)의 압승과 모디 총리의 취임

○ 인도 총선은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로, 16대 총선은 임기 5년의 연방하원의원 543명(대통령 임명 2명 제외)을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 8억 1,450만 명 중 66.4%가 투표*에 참여하였음.

* 선거기간(4.17~5.12)이 36일, 참여정당 약 1,600개, 투표소 약 93만개, 선거비용 약 50억 달러 규모임.

○ 제1야당이었던 BJP가 단독으로 연방하원 543석 중 282석을 확보하였으며,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회당(INC)은 44석을 확보함.

○ BJP는 친기업 성향의 구자라트 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를 총리 후보로 지명함. 의원내각제 국가인 인도는 하원을 지휘하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총리가 인도의 실질적 최고 국정책임자임.

□ 모디의 총선 승리 요인

○ **경제성장**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

- 2007년 9.6% 수준까지 올라갔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도 정부의 지지부진한 경제개혁으로 2013년 4.9%로 급락함.

- 반면,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중(2001년~현재)에 보여준 모디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경제개혁 성과*가 인도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여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함.

  * 모디는 친기업 정책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,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구자라트주를 인도 내 성장률이 가장 높은 주로 변모시킴.

○ 기존 여당 **권력세습 및 부패스캔들**

- 4대에 걸친 네루 가문의 세습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

  * 금번 선거의 집권당 총리 후보 라울 간디는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의 외증손자임.

- 이동통신 입찰비리, 국유탄광 헐값 매각 등 정부의 부패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집권당 신뢰도가 추락함.

2. 모디 정부에 대한 기대 및 우려

□ 모디 정부에 대한 경제성장 기대감

○ 모디의 주요 공약인 인프라 건설, 청년 일자리 창출, 물가안정 및 조세개혁 등을 감안할 때,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
-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력, 수도,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고, 도시별 산업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육성,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함.

-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소득세 및 판매-소비세를 철폐, 단순화하여, GST(Goods and Services Tax)제도*를 도입할 예정.

  *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모든 간접세를 단일세로 통합하는 부가세(VAT)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임.

○ 모디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선거결과 발표 전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및 루피화 가치 급상승함.

- SENSEX 지수는 2014년 5월 16일 사상최고치인 2만 5,376포인트를 기록하였고, 이는 2013년 8월 28일 1만 7,449포인트 대비 45% 상승한 수치임.

□ 모디 정부에 대한 우려감

○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미비

- 쌍둥이 적자, 투자율보다 낮은 저축률 등으로 인프라 확충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여력이 미미함.

-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급격한 정부 지출 확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.

○ 힌두-무슬림 간 종교 갈등 심화

- 2002년 구자라트주 폭동 시 힌두교도에 의한 무슬림 학살을 묵인하였다고 끊임없이 의심받아 온 모디 주도의 BJP당 집권에 대해 무슬림집단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힌두-무슬림간 종교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.

3. 모디 총리 취임 및 내각 구성

□ 총리 취임식 및 직후 행보

○ 모디 취임식은 각국의 축전과 함께, 파키스탄 총리가 초대되어 이목이 집중되었음.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, 세 번의 전쟁을 치뤘으며, 상대국 총리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독립 후 처음임.

-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모디의 총리 취임을 양국의 관계에 있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축하하였으며, 동 참석으로 향후 양국의 긴장완화 기대감이 형성됨.

○ 금번 취임식에는 파키스탄 총리 이 외에도, 아프가니스탄, 스리랑카, 모리셔스, 몰디브, 네팔,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전역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함.

○ 모디 총리는 취임식에서 인도 헌법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, “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, 강하고, 발전되고, 통합된 인도를 건설하겠다”라고 약속하였음.

- 금번 파키스탄 총리 취임식 초청과 같이, 주변국과의 안정을 도모한 후, 일본 등과 연계하여 중국과 경쟁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.

○ 총리 취임 둘째 날(27일)은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50주기 추모행사였으나, 모디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기존 엘리트 정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함.

- 동 행보에 대해, 외국 언론들은 “인도의 국부로 추앙받는 네루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”으로 보도함.

- 모디는 1946년 네루가 집필한 “인도의 발견” 내용에 빗대어, “네루는 인도를 발견해야 했지만, 기차역에서 차 노점상을 하며 자란 나는 인도를 발견할 필요가 없었다.”고 비판하며, 엘리트 출신 네루가 서민의 물정을 잘 몰랐음을 지적함.

□ 내각 구성 관련 주요 포인트

○ 모디는 “작은 정부”를 강조하며, 금번 내각 구성시 기존 정권에서 71명(총리 포함)에 달했던 구성원의 수를 46명으로 축소함.

- 비록 내각 수는 축소되었으나, 선출된 장관들이 대부분이 BJP 소속의 모디 측 인물로 구성*되어 향후 정책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* 지난 정부는 INC 자체 의석수가 부족한 상태로 연정을 한 탓에 여러 군소 정당 앞 내각직 제공이 불가피하여, 많은 수의 내각을 구성하였으며, 이 때문에 각 부처간 협조도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됨.

○ 주요 내각 보직으로는 재무부 장관으로 아룬 제이틀리, 내무부 장관으로 라즈나트 싱, 외무부 장관으로 수스마 스와라지가 임명되었고, 특히 아룬 제이틀리는 국방부 장관도 겸임함.

- 모디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, 재무부 장관 제이틀리의 활약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제이틀리는 현재 역대 최하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, 동시에 인플레이션율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.

* 제이틀리는 BJP 청년조직 리더 출신으로, '01년 법무부 장관, '03년 통상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풍부한 행정가로 신임을 얻고 있음.

- 금번 내각은 여성이 전체 장관직의 25%(6명)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, 연령대는 전 정부 대비 소폭 젊어진 상황임.

-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 이미지와 같이, 내각 구성원의 평균 재산은 전보다 증가하였으며, 금번 내각 구성원 수의 절대적인 규모 축소로 인해 BJP 이외 연합정당에 배정된 내각직과 하위 카스트 등 사회약자 앞에 배려되던 내각직 비율도 축소됨.